

韓國 五種 字典의 字源 分析과 甲骨文·『說文』 과의 比較연구 X

梁東淑*

<목 차>

- 一. 序論
- 二. 五種 字典과 甲骨文·『說文』 과의 字源比較
 1. 五種 字典의 選別
 2. 比較 根據
 3. 比較 狀況
- 三. 綜合分析
- 四. 제1~제9차 연구의 종합
- 五. 結論

一. 序論

본 연구는 한국의 5종 한자 자전의 자원 분석과 甲骨文·『說文』 과의 자원 풀이를 비교했던 第九次 연구에 이은 열 번째 논문이다.

갑골문(B.C.1300~B.C.1046)은 문장체계를 갖춘 중국최초의 문자로서 1899년 발견 이래 약 15만여 편을 찾았고 5천여 자의 갑골문자 가운데 1천여 자가 풀이되고 있다. 갑골문자는 漢字의 字源을 증명해 줄 수 있는 가장 신빙성 있는 문자이다. 갑골문자가 발견되기 전에는 후한의 許慎이 저술한 『說文解字』(A.D.100)를 漢字

* 숙명여자대학교 중어중문학과 교수

풀이의 근거로 삼아왔다. 갑골문자가 발견된 뒤 『說文解字』 중의 자형 풀이와 갑골문을 비교하여 볼 때 일치하지 않은 부분이 적지 않게 발견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漢字 字典중의 字源 풀이는 어떠한지 고찰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임을 인식하게 되었다.

현재 한국 내에서 사용하고 있는 한자 사전 중 1990년 이후 출판된 字典 · 玉篇가 100여 종이 넘으며 크고 작은 字典들이 많게는 一萬여 자에서 수 千字의 漢字를 표제자로 하여 字音 · 字義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그 중 적지 않은 사전은 한자 자형의 근원을 곁들여 풀이 하고 있는데 그 풀이는 어떠한지 살펴볼 필요가 있었다.

본 연구는 한국 한자 사전중의 자원 풀이가 한자 자형 구조에 일치되는 풀이를 하고 있는지를 갑골문 · 『說文』 과 비교하여 검토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따라서 한자 사전 중 갑골문에 있는 글자를 중심으로 하고 중간 단계에서 풀이한 『說文』 중의 자형 풀이도 함께 견주어 살펴보고자 한다. 갑골문자의 풀이는 현재 일반적으로 쓰는 여러 갑골문자전을 참고로 삼았다. 우선 갑골문자중 한국에서 단독으로 쓰이는 실용 漢字 600여 자를 선별해 214부수 순으로 배열하였다. 지금까지 1차 연구에서는 一 · | · 丶 · 丿 · 乙 · 丨 · 二 · 亠 · 人 · 儿 등 10개 부수속의 62자, 제2차 연구에서는 入 · 八 · 冂 · 冫 · 彳 · 几 · 凵 · 刀 · 力 · 勹 · 匕 · 匚 · 十 · 卜 · 冂 · 厂 · 厶 · 又 · 口 등 19개 부수속의 81자, 제3차 연구에서는 口 · 土 · 士 · 夕 · 夕 · 大 · 女 · 子 · 宀 · 寸 · 小 · 尢 · 尺 · 山 · 巛 · 工 등 16개 부수 71자를, 제4차 연구에서는 己 · 巾 · 干 · 玄 · 广 · 廴 · 艹 · 弓 · 彳 · 心 · 戈 · 戶 · 手 등 13개 부수 속의 50자를, 5차 연구에서는 支 · 文 · 斗 · 斤 · 方 · 死 · 日 · 日 · 月 등 9개 부수 속의 42자를, 6차 연구에서는 木 · 欠 · 止 · 歹 · 攴 · 母 · 比 · 氏 · 气 등 9개 부수 35자를, 7차 연구에서는 水 · 火 · 瓜 · 父 · 片 · 牛 · 犬 등 7개 부수 37자를, 8차 연구에서는 玉 · 甘 · 生 · 用 · 田 · 疋 · 疒 · 疒 · 自 · 皿 · 目 등 11개 부수 35자를, 9차 연구에서는 矢 · 石 · 示 · 肉 · 禾 · 立 · 竹 · 米 · 糸 등 9개 부수 44자를 분석하였

고, 본 연구에서는 缶·网·羊·羽·老·而·耒·耳·肉·臣·自·至·臼·舌·舛·舟·艮·色· 등 18개 부수 32자를 분석하였다.

二. 五種 字典과의 甲骨文·『說文』의 字源 比較

1. 五種 字典의 選別

한국에서 사용되는 수십 종의 한자 字典중에서 본 논문을 작성하기 위한 기본 자료로서의 字典은 다음과 같은 조건하에 선별하였다.¹⁾ 첫째, 자원의 풀이가 있는 책. 자원의 풀이를 비교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자원 풀이가 있는 것은 필수 요건이다. 둘째, 비슷한 크기의 책. 자전의 크기는 上, 中, 下에서 중간 크기의 책으로 한정했다. 비슷한 책을 선택한 이유는 편폭이 유사해야 내용물의 비교에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되었기 때문이다. 셋째, 비슷한 시기에 출판한 자전으로 선택하였다. 출판 시기는 매우 중요하다. 계속적으로 증보판이 나오고 있으므로 동 시기에 출판된 사전을 비교대상으로 삼은 것이다.

이상과 같은 기본 조건하에서 수종의 사전 중 아래 5종의 사전을 선별했다.²⁾ 이들 한자사전은 자원 풀이를 목적으로 제작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원 풀이의 많고 적음이 크게 문제 될 것은 없다. 본고는 한국 한자사전의 자원 풀이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분석을 진행한 것이다. 그러나 혹시 해당 출판사에 불편이 생길 것을 우려하여 서명과 출판사 명은 비공개로 하였다.

(1) 『P 漢字辭典』, 2002

(4) 『D 玉篇』, 2005

1) 본 연구는 전체 13 편으로 구성되는데 이 논문은 열 번째 연구이다. 그 중 韓國漢字字典概況은 첫 번째 논문〈韓國 五種 字典의 字源 分析과 甲骨文·『說文』과의 比較연구 I〉(『中國語文學論集』 제37호 2006. 4.)의 제 2장을 참고 할 수 있다.

2) 각 사전의 앞 번호는 '5종 사전의 자원 풀이 비교' 중의 번호와 같다.

(2) 『K 漢字辭典』, 2003

(5) 『S 漢字辭典』, 2005

(3) 『H 活用辭典』, 2005

2. 比較 根據

본 절에서는 5종 자전중의 한자 자원을 한자의 원류인 甲骨文의 풀이 및 『說文』의 풀이와 견주어 살펴보고자 한다. 갑골문은 3천여 년 전 상대후기에 왕실을 중심으로 쓰였던 문자이다. 주대에는 금문, 진대에는 李斯에 의해 개조된 小篆이 쓰였다. 이어 한대에는 隸書, 晋代이후 楷書로 바뀌었고, 1950년 이후 중국이 簡化字를 만들기까지 6차례 자체의 변화를 거쳤다. 앞서 언급한 대로 1899년 갑골문이 발견되기 전 한자의 자원 풀이는 대부분 漢代에 許慎이 저술한 『說文解字』의 문자 풀이를 근거로 하였다. 『說文』은 진대의 小篆 자체를 바탕으로 하였다. 小篆은 갑골문에서 1천 3백여 년의 세월 속에 변화된 문자이며 특히 춘추 전국문자는 많은 혼란을 겪으며 秦代에 또 한 차례 인위적인 정리를 거쳤다. 그 과정에서 갑골문 자형이 알아볼 수 없을 만큼 원형을 잃은 자가 있는데 그 기초 위에 小篆이 형성되었고 『說文』은 그러한 小篆 형체를 근거로 풀이한 경우가 적지 않다.

본 절에서는 5종 자전의 글자 중 갑골문과 『說文』에 있는 글자만을 선별해 자형풀이를 분석하고 비교 검토한다. 비교 대상 글자는 [缶部] 缶 1자, [网部] 罔 羅 2자, [羊部] 羊 美 羞 義 4자, [犛部] 羽 翳 2자, [老部] 老 1자 [而部] 而 1자, [未部] 耒 1자, [耳部] 耳 聖 聞 聲 聽 5자, [肉部] 肉 育 2자 [臣部] 臣 1자 [自部] 自 臭 2자 [至部] 至 1자 [臼部] 興 舊 2자 [舌部] 舌 1자 [舛部] 舞 1자, [舟部] 舟 般 2자, [艮部] 良 艱 2자, [色部] 色 1자 등 18개 부수 도합 32자이다.

갑골문의 자형 풀이는 현재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徐中舒의 『甲骨文字典』을 비롯해 于省吾의 『甲骨文字詁林』, 李孝定的 『甲骨文字集釋』, 趙誠의 『甲骨文簡明字典』, 谷衍奎의 『漢字源流字典』 등 여러 저서를 참고자료로 삼았다.³⁾

3) 갑골문자는 대략 1천여 자 고석 되었다고 보고 있는 가운데 『甲骨文字典』의 경우 1114자











3. 比較 狀況

우선 5종 자전을 1~5까지 번호순으로 나열하고 해당글자의 자원폴이를 열거한 다음 아래에 갑골문과 『說文』의 글자폴이를 곁들여 비교할 수 있게 배열하였다. 해당 글자에는 甲骨文·金文·戰國文字·小篆·隸書를 차례로 나열하고 簡體字 가 있는 경우 함께 수록하여 자형을 건주어 볼 수 있게 하였다. 마지막으로 비교한 내용을 <분석>에 간추렸다. 실제적인 비교 결과는 배점으로 처리해 갑골문 또는 『說文』의 자형폴이와 일치할 경우를 2점, 다소의 연관이 있을 경우를 1점, 연관이 없을 경우를 0점으로 하였다. 5종 자전 중의 폴이가 갑골문의 여러 가지 폴이 중 한 가지와 일치한 경우 1점을 배점하였다. 글자 폴이 뒤의 숫자는 甲骨文·『說文』순으로 한 배점 상황이다.

卣	卣	卣 卣	卣	卣	卣
乙 7752反	剛劫尊	春秋樂書卣 書也卣	說文卣部	老子銘	간체자
1. 술 장군의 모양을 본뜬 글자. (2, 2) 2. 없음. (0, 0) 【卣部】 3. 액체를 담는 기구인 장군의 모양. (2, 2) 1 4. 액체를 담는 장군의 모양을 본뜬 글자. (2, 2) 5. 배가 불룩하고 아가리가 좁은 질그릇의 모양을 본뜬. (2, 2) 【甲骨文】 물이나 술 등 액체를 담는 도기 모양. 『典·引』 (상형) 【說文】 「卣, 瓦器, 所以盛酒漿, 秦人鼓之以節調. 象形. 질그릇이다. 술이나 액체를 담는 기물이다. 진나라 사람들은 이것을 두드려 노래를 부를 때 박자를 맞추었다.」 (상형)					

를 수록했다. 여러 자전들 중 일부 글자는 일치된 견해를 얻지 못한 경우도 있다. 여러 가지 설이 있는 글자는 여러 견해를 두루 나열하였다. 아래 자전류 뒤의 字는 字典의 簡稱이다.

- | | | | | | |
|-----------|-----|-----------|-----|------------|-----|
| 『甲骨文字典』 | 『典』 | 『甲骨文簡明字典』 | 『簡』 | 『形音義綜合大字典』 | 『綜』 |
| 『殷墟甲骨文引論』 | 『引』 | 『甲骨文字詁林』 | 『詁』 | 『甲骨文字集釋』 | 『集』 |
| 『說文新證』 | 『新』 | 『漢語字源字典』 | 『源』 | 『古文字論集』 | 『古』 |
| 『古文諧聲字根』 | 『諧』 | 『金文常用字典』 | 『金』 | 『漢字源流字典』 | 『流』 |

<p>〈분석〉 갑골문에서 해서까지 일맥상통하게 발전했다. 다만 전국시대 '書也'나 包山에 '金'이 첨가된 자형이 보이지만 자형 변화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p>					
					罔
后下8 庫653	仲网父簋	戰國雲夢	說文网部	楊震碑	간체자
<p>1. 网과 亡을 합친 글자. (0, 2) 2. 网과 亡(보이지 않다)을 합친 글자. (0, 2) 【网部】 3. 网的 변형 +亡. 忙 · 忘 · 罔과 같이 亡이 성부. (0, 2) 2 4. 없음. (0, 0) 5. 网과 음과 덮는다는 뜻의 亡으로 이루어짐. (0, 2)</p> <p>【甲骨文】 물고기를 잡는 망의 모양. 『典·引』(상형) 【說文】「罔, 庖犧所結繩 所漁. 从亡, 下象罔交文. 網或加亡. 복희씨가 새끼를 꼬아 만든 기물로 물고기를 잡는데 썼다. 亡을 따랐고, 아래에 있는 xx는 자여진 망의 문양이다. 或体는 网에 근을 붙였다.」(상형)</p> <p>〈분석〉 갑골문 시대의 网은 전국시대에 이르러 亡을 성부로 하여 从网亡聲의 형성자로 변화였다.</p>					
					罗
合33081 乙4502	古鉢	戰國雲夢	說文网部	孔勣祀碑	간체자
<p>1. 그물망(𦉳 : 网)과 맬유(維)를 합친 글자. (0, 2) 2. 維(아래로 늘어진 밧줄)와 𦉳(그물)로 만들어진 글자. (0, 2) 【网部】 3. 𦉳+糸+隹 새를 잡는 실로 엮은 그물을 뜻한다. (0, 2) 3 4. 𦉳과 維를 합친 자. 𦉳은 网, 維는 버리. 새를 잡는 그물. (0, 2) 5. 그물망(𦉳)과 음을 나타내는 維로 이루어져 새그물의 뜻. (0, 2)</p> <p>【甲骨文】 망(网)으로 새(隹)를 잡는 모양. 『典·引』(회의) 【說文】「羅, 以絲罟鳥也. 从网从維. 古者芒氏初作羅. 끈으로 짜서 만든 새잡이 망이다. 网과 維를 합하였다. 옛날 '芒氏'가 처음 이를 제작했다.」(회의)</p> <p>〈분석〉 갑골문 초기에는 사람이 두 손으로 망을 벌리고 새를 잡는 모양으로</p>					

大, 网, 隹의 합체였으나 두 손 벌린 모양의 大는 생략되고 网과 隹를 합친 형체였으나 금문 이후 糸가 추가되었다.

河 387	孟鼎	齊陶甗 睡虎地		說文羊部	武威簡	간체자

1. 羊이 난 양의 모양을 본뜬 글자. (2, 0)
 2. 양의 머리를 본뜬 글자. (2, 0) 【羊部】
 3. 양을 앞에서 본 모양. (2, 0) 4
 4. 양의 네 발과 꼬리를 나타낸 것이다. (0, 2)
 5. 양의 두부를 도형화 한 것. (2, 0)
 【**甲骨文**】 양의 정면 얼굴 모양으로 羊, 𦍋, 𦍋, 얼굴을 그린 형상이다. 『**典·引**』 (상형)
 【**說文**】 「羊, 祥也. 从𦍋, 象頭, 角, 足, 尾之形. 길상이다. 양의 머리(𦍋), 羊, 다리, 꼬리의 형상이다.」 (상형)
 <**분석**> 얼굴 모양만을 그려 부분으로 양의 전체를 나타낸 자다. 본의는 ‘양’이다. 『**설문**』의 ‘**祥也**’는 인신의이다.

存上 1364	美爵	中山王甗 楚靈彙		說文羊部	老子乙前 43	간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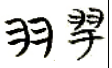



1. 羊과 大를 합친 글자. (0, 2)
 2. 羊과 大가 합친 글자. (0, 2) 【羊部】
 3. 羊 + 大. 살찐 큰 양은 맛이 있다는 뜻. (0, 2) 5
 4. 羊 + 大. 양이 크고 살찐 것이 특히 맛이 좋다는 뜻. (0, 2)
 5. 大는 사람, 羊은 신에게 바치는 희생의 짐승으로서의 양. (0, 2)
 【**甲骨文**】 사람머리에 깃털 등으로 장식한 모양으로 아름다움을 나타냈다. 『**引·簡**』 (합체상형)
 【**說文**】 「美, 甘也. 从羊, 从大. 羊在六畜主給膳也. 美與善同意. 맛이 달다. 羊과 大를 합쳤다. 양은 六畜중에서 제사에 드리는 가장 중심적인 짐승이다. 美는 善과 구조와 의미가 같다.」 (회의)

<p>〈분석〉 갑골문이 발견되기 전 『설문』에 근거해 美를 羊과 大를 합한 자로 보았으나 갑골문 美는 사람(大)이 머리에 장식을 한 모양으로 고석하여 풀이가 바뀌었다. ‘아름답다’는 뜻 이외에 인명, 지명으로도 쓰였다.</p>					
甲 2006	多友鼎	戰齊饗棠 秦睡虎地	說文羊	漢印徵 熹儀禮既夕	간체자
<p>1. 없음. (0, 0)</p> <p>2. 없음. (0, 0) 6</p> <p>3. 羊의 변형 + 丑. 丑은 손가락으로 고기를 잡는 모양. (0, 2)</p> <p>4. 羊 + 丑 ‘羊’은 종묘에 바치는 희생의 양. 丑은 끄는 끈. (0, 2)</p> <p>5. 羊에 음과 동시에 권하다는 뜻의 丑을 더한 자. (0, 2)</p> <p>【甲骨文】 손(又)으로 양(羊)을 쥐고 있는 모양으로 양을 제물로 올리는 형상이다. 『典 · 引』(회의)</p> <p>【說文】 「羞, 進獻也. 从羊, 羊所進也, 从丑, 丑亦聲. 음식물을 올린다. 羊은 제사에 올리는 식품이라 羊과 丑을 합쳤는데 丑은 음으로도 쓰였다.」(형성)</p> <p>〈분석〉 손에 양을 들고 있는 모양으로 ‘맛있는 음식’, 맛있는 음식을 ‘제물로 올림’을 나타냈다. 그러나 소전, 예서에서 又가 丑으로 바뀌었다. 제물이나 맛있는 美를 독점하거나 탐내는 것은 부끄러운 일로 점차 ‘부끄럽다’, ‘수치’ 등의 인신의를 낳았다.</p>					
掇2.49	牆盤	郭店	說文羊部	華山廟	간체자
<p>1. 羊과 我를 합친 글자. (2, 2)</p> <p>2. 我(갈쭉하게 모난 창)와 羊이 합친 글자. (2, 2) 7</p> <p>3. 羊 + 我. 양을 신의 뜻에 맞게 톱으로 썬다는 의미. (2, 2)</p> <p>4. 羊 + 我. 羊은 아름다워 나의 행동이 예의에 맞다는 뜻. (2, 2)</p> <p>5. 我是 음을 나타내고 羊은 신에게 바치는 희생의 양. (2, 2)</p> <p>【甲骨文】 羊과 我를 합한 자다. 『典 · 引 · 流』(회의)</p> <p>【說文】 「義, 己之威儀也. 從我羊. 자기의 위용을 들어낸다. 我와 羊을 따랐는</p>					

데 我를 따른 이유는 위용은 자신에게서 발해지기 때문이고, 羊은 아름다운 짐승으로 길상을 나타내기 때문이다。」(회의)

〈분석〉 我는 무기의 일종으로 칼의 작용을 하여 ‘양을 잘라 제수품으로 올림’, ‘희생물’을 나타냈다. 이는 거역할 수 없는 큰일이므로 ‘정당’, ‘도리’, ‘의미’ 등으로 인신되었고, ‘임의적으로 만든다’는 뜻도 있어 ‘의족’, ‘의치’ 등에 쓰였으며 ‘용모’ 등으로 인신되었다.

義가 인신의에 전용되자, 희생은 義자를 쓰다가 牛를 의부로 붙인 犧자를 만들었고, 용의는 의부 人을 붙인 儀자를 만들어 전용하였다. 『설문』의 뜻은 인신의이다. 長沙에서 발견된 帛書중의 義자는 아래 戟자를 합한 경우도 있어 고대에 我와 戟이 통했음을 알 수 있다.

					
后上17 粹863	孟鼎(翬)	包山2.26, 2.12	說文羽部	曹全碑	간체자

- 새의 깃 또는 날개를 본뜬 글자. (2, 2)
 - 새의 두 날개를 본뜬 것. (2, 2) 【羽部】
 - 새의 깃 모양을 본땀다. (2, 2) 8
 - 새의 날개를 본땀다. (2, 2)
 - 새의 날개의 모양을 본땀. (2, 2)
- 【**甲骨文**】 새의 날개 깃 모양. 『典·引·簡』(상형)
 【**說文**】 「羽, 鳥長毛也。象形。새 날개의 긴 털이다。」(상형)
 〈**분석**〉 羽자의 자형은 변화가 다양하다. 새의 깃털 모양, 날개모양으로 본다. 갑골문에서는 모두 翬, 羽의 의미로 가차되어 제사명(翬祭), 다음날(翬, 翬日)로 빌려 썼고, 인명, 지명으로도 썼다. 전국 이후 羽형을 중심으로 발전되었다.

					
甲 920	周陽后顧	楚鄢語三 睡虎地	說文羽部	定縣竹簡	간체자

- 羽와 白을 합친 글자. (0, 2)
- 羽(날개)와 白이 합친 글자. (0, 2) 【羽部】
- 羽 + 白(自의 변형). 숨찬 입김이 코에 담. (0, 2) 9






4. 羽 + 白. 白은 自, 自는 鼻. 翎과 白을 합한 자. (0, 2)

5. 双과 白을 합한 자에서 翎과 白으로 바뀐 자. (0, 2)

【**甲骨文**】 새가 창공을 날아오름을 나타낸 从翎从日的 회의자다. 『引, 流』, 햇빛에 말리는(暴乾) 모양. 『新』 (회의겸 형성)

【**說文**】 「翺, 數飛也。從翎, 從白。 여러차례 거듭해 날다. 翎과 白을 합쳤다。」 (회의)

〈**분석**〉 갑골문 翺은 从日(彗)聲의 형성자다. 翎은 彗(비로슬 혜)의 약자로 翺과 음이 같고 날개의 모양도 翎 이다. 翺은 갑골문에서 '重復하다'로 가차되었다. 금문에서는 보이지 않고 전국문자에서 예서까지 彗형이 翎과 구분할 수 없게 되었다. 『설문』에서 翺은 从翎라 하였고 전국문자에서 日이 自로 바뀌고 睡虎地에서는 目으로 잘못 변했다가, 『설문』에서 다시 白으로 바뀌었다. 「數飛也」라고 한 것은 가차의라고 할 수 있다.

					老
---	---	---	---	--	---

前 4.461 午年召伯虎簋 鬲 楚包山 說文老部 淮源廟碑 간체자

1. 허리 굽은 노인이 지팡이를 짚고 서 있는 모양. (2, 0)

2. 허리가 굽은 노인이 지팡이를 짚고 있는 모양. (2, 0) 【**羊部**】

3. 허리 굽은 사람이 지팡이를 짚고 있는 모양. (2, 0) 10







4. 毛 + 人 + 匕. 匕는 人을 뒤집은 것으로 늙은이라는 뜻. (0, 2)






5. 늙은 사람이 지팡이를 짚고 있는 모습. (2, 0)

【**甲骨文**】 노인이 지팡이를 짚고 걷는 모양. 『典 · 引 · 簡』 (회의)

【**說文**】 「老, 考也。七十曰老。從人毛匕。言須髮變白也。 노인이다. 70세면 노인이라 한다. 人, 毛, 匕를 합쳤다. 머리털이나 수염이 모두 희게 됨을 말한다。」 (회의)

〈**분석**〉 갑골문 자형은 노인이 지팡이를 짚은 모양이지만 금문에서 지팡이가 匕로 변했고 전국문자에서 止로 바뀌었으며 소전, 예서에서는 다시 匕를 따랐다.

						而
---	---	---	---	---	---	---

粹 260	尸敎籒	蔡侯殘鐘 子禾子釜	說文而部	曹全碑	간체자
1. 코밑 또는 턱수염의 모양을 본뜬 글자. (2, 2) 2. 부드러운 턱수염의 모양을 나타낸 글자. (2, 2) 【而部】 3. 길게 자란 수염의 모양. 새김은 가차. (2, 2) 11 4. 코밑 수염을 본뜬 글자. (2, 2) 5. 턱수염을 본뜬 글자. (2, 2) 【 甲骨文 】 볼이나 턱 아래 난 수염모양이다. 『引·流·簡』(상형) 【 說文 】「而, 頰毛也。象毛之形。 볼에 난 털이다. 털 모양이다。」(상형) <분석> 而是 볼이나 턱에 난 수염모양이지만 갑골문에서는 수염으로 쓰이지 않고 제사명, 방국명으로 쓰였다. 남성의 수염은 거의 비슷해 '갈다'로 인식되었고 고대에는 얼굴에 난 수염으로 청년에서 성년으로 넘어가는 전환점의 근거로 여겼기 때문에 而是 말의 의미를 반전하는 의미로 나타내고 '병열', '인과', '가설' 등을 나타내는 접속사로 쓰인다.					
					
父己觶	父乙爵 耒作父己觶	戰國文字	說文耒部	北海相景君	간체자
1. 우거진 풀을 갈아엎는 '쟁기'의 모양을 본뜬 글자. (2, 0) 2. 없음. (0, 0) 【耒部】 3. 없음. (0, 0) 12 4. 木 + 耒 = 耒. 목제 연장으로 풀을 갈아 넘김. (0, 2) 5. 땅을 가는 가래의 모양을 나타낸 자. (2, 0) 【 甲骨文 】 아래가 둘로 갈라진 농구인 가래모양이다. 『新』(상형) 【 說文 】「耒, 手耨曲木也。從木推耒。古者垂作耒耜, 以振民也. 손으로 농사 지을 때 쓰던 굽은 나무이다. 나무(木)로 풀덤뿔(耒·jie)을 미는 모양이다. 옛날 농사신이 가래나 보습 같은 농구를 발명해 이로서 백성을 구했다。」(회의) <분석> 갑골문 耒의 손잡이는 곡선이고 아래는 두 갈래이며 그 위에 횡목이 걸쳐있는데 이는 발로 밟고 힘을 줄 수 있게 한 것이다. 때로는 손(又)이 첨가되었다 점차 아래는 木으로 잘못 변했고 위에는 耒가 추가 되었다. 『설문』은 從					

木推彡이라고 오인하였다.					
					耳
鐵138.2 後1.30.5	耳聑	晉壘棠 秦睡虎地	說文耳部	漢印徵	간체자
<p>1. 사람의 귀의 모양을 본뜬 글자. (2, 2)</p> <p>2. 부드러운 깃불을 본뜬 것. (2, 2) 【耳部】</p> <p>3. 깃불이 늘어진 귀의 모양을 본뻘다. (2, 2) 13</p> <p>4. 귀를 본뜬 글자. (2, 2)</p> <p>5. 귀의 모양을 본뜬 글자. (2, 2)</p> <p>【甲骨文】 사람의 귀 모양. 『典·引·簡』 (상형)</p> <p>【說文】 「耳, 主聽也。象形。듣는 기능을 주관했다.」 (상형)</p> <p>〈분석〉 전형적인 상형자이다. 그러나 전국문자, 소전에 이르러 상형자의 면모가 사라졌다. 사람의 오관 중에서 귀와 눈이 외부의 영향과 주시를 가장 많이 받아 '耳目' 이라는 말도 생겨났다.</p>					
					聖
乙 5161	井人鐘	戰國楚包 秦睡虎地	說文耳部	定縣竹簡	간체자
<p>1. 귀(耳)와 드러날정(呈)을 합친 글자. (0, 2)</p> <p>2. 呈(똑바로 지적하다)과 耳가 합친 글자. (0, 2) 【耳部】</p> <p>3. 耳 + 呈. 呈의 변음이 성부. (0, 2) 14</p> <p>4. 없음. (0, 0)</p> <p>5. 耳와 음을 나타내는 呈을 합한 자. (0, 2)</p> <p>【甲骨文】 사람이 서서 귀로 들은 바를 분명하게 말함을 뜻한 자로 人, 耳, 口를 합하였다. 『典·引·流』 (회의)</p> <p>【說文】 「聖, 通也。从耳, 呈聲。두 귀가 원활하게 잘 들린다. 耳를 따랐고, 呈을 음으로 한다.」 (형성)</p> <p>〈분석〉 금문은 대체로 갑골문을 이어받았으나 전국문자에서 耳, 口, 壬의 합체로 변하였고 소전에서 從耳呈聲으로 풀이하였다. 갑골문에서 耳와 口를 부각시켜 영민하고 숭고하며 재능 있는 사람을 나타냈다. 후대 문헌인 『禮記』에서</p>					















聖은 '天地人 三才의 道를 꿰뚫을 줄 이는 사람(知通乎大道)'이라 하고 『설문』은 '耳順 함을 聖이라 하였다. 점차 '無所不通 함으로 다시 매사에 '精通 함으로 인신 되었다.










					聞
前 7.31.2	孟鼎	戰國秦壘策 秦睡虎地	說文耳部	華山廟碑	간체자











1. 門과 耳를 합친 글자. (0, 2)
 2. 門(문)과 耳가 합친 글자. (0, 2) 【耳部】
 3. 門 + 耳. 問·們과 같이 門이 성부. (0, 2) 15
 4. 없음. (0, 0)
 5. 耳와 음을 나타내는 門을 합친 글자. (0, 2)
 【甲骨文】 사람이 꿰어 앉아(𠂔) 손(又)으로 큰 귀(耳)를 감싸고 소리를 듣는 모양이다. 『典·引·流』(회의)
 【說文】「聞, 知聲也。从耳, 門聲。 소리를 알아듣는다. 耳를 따랐고, 門을 성으로 한다.」(형성)
 <분석>갑골문, 금문은 같은 맥락이지만 전국문자에서 새로운 자형구조, 즉 사람이 문 사이에서 듣는 형상으로 바뀌었으며 형성자로 전환되었고 소전이하 동일하게 발전했다.













					聲
粹 1225	金文	珍秦117 秦睡虎地	說文耳部	定縣	간체자













1. 경쇠경(聲 : 聲)과 耳를 합친 글자. (2, 2)
 2. 声(매단 석판)과 殸(곤봉)과 耳가 합친 글자. (2, 2) 【羊部】
 3. 聲 + 耳. 聲이 성부. (2, 2) 16
 4. 없음. (0, 0)
 5. 음을 나타내는 聲은 경쇠, 耳는 귀. 경쇠 소리를 듣는 일. (2, 2)
 【甲骨文】 聲, 耳, 口를 합친 자. 손으로 악기인 경쇠를 두드려 내는 소리를 들음을 나타낸 자이다. 『典·引·流』(회의)















<p>【說文】「聲，音也。从耳，𦔻聲。 소리이다. 耳를 따랐고 𦔻를 음으로 한다.」(형성)</p> <p>〈분석〉갑골문은 𦔻사이에 耳과 口를 넣어 기뻐 지른 합성이 귀가에 들림을 나타내 ‘소리’라는 개념을 표현하였다. 점차 𦔻중의 石을 생략하고 耳를 넣었다. 간체자에서는 聲부분만 남겼다.</p>						
						
甲 3536 乙 3396	王子甲觥 齊侯壺	戰國楚鄂唐	說文耳部	白神君碑	간체자	
<p>1. 耳와 壬 그리고 큰덕(德)을 합친 글자. (0, 2)</p> <p>2. 惠는 直과 心의 합. 壬은 사람이 똑바로 선 모습. (0, 2) 【羊部】</p> <p>3. 耳 + 壬 + 惠. 壬(정)의 변음이 성부. (0, 2) 17</p> <p>4. 없음. (0, 0)</p> <p>5. 耳와 세우다의 뜻인 惠과 음인 壬(정)으로 이루어짐. (0, 2)</p> <p>【甲骨文】입(口)으로 말한 것을 귀(耳)로 들음을 나타냈다. 『典·引·流』(회의)</p> <p>【說文】「聽，聆也。从耳从惠，壬聲。 소리가 귀에 통순하게 들린다. 耳와 惠를 따랐고 壬을 성으로 한다.」(형성)</p> <p>〈분석〉갑골문은 귀와 입을 합쳤는데 때로는 입을 두 개 합쳤다. 금문도 두 가지 자형이 있는데 ①형은 갑골문을 이었고 ②형은 아래에 生과 古를 합쳐 과거에 발생한 일을 듣는다는 의미를 추가하였다. 전국문자에는 갑골문을 따랐고 소전에서는 從耳 從惠, 壬聲으로 변화였다. 惠는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곁은 마음을 표시한다.</p>						
						
甲 1823	楚王飲志	戰國楚包 秦睡虎地	文肉部	史晨碑	간체자	
<p>1. 잘라 낸 고깃덩어리를 본뜬 글자. (2, 2)</p> <p>2. 주름이 잡힌 부드러운 살을 본뜬 것. (2, 2) 【肉部】</p> <p>3. 힘줄이 보이는 살코기의 한 덩이를 본뵈다. (2, 2) 18</p>						

4. 없음. (0, 0) 5. 신에게 바치는 동물의 고기의 썬 조각. (2, 2) 【 甲骨文 】 살코기 덩어리 모양. 『 典·引·流 』 (상형) 【 說文 】 「肉, 𩚑肉. 象形. 큰 고기 덩어리이다. 상형이다.」 (상형) <분석> 고기 덩어리 모양으로 '고기'를 나타냈다. 전국문자에 오면서 고기의 곁이 그려졌고, 예서에서 肉의 형태를 보였다. 肉자가 합체자일 경우 전국문자자 형을 담은 '月'로 쓴다.					
					育
前1.30甲818	呂中僕彝	戰國文字	說文肉部	白神君碑	간체자
1. 아이 돌아 나올 돌(女)과 몸 육(月 : 肉)을 합친 글자. (0, 2) 2. 女은 子를 거꾸로 한 형과 月(肉)이 합쳐진 자. (0, 2) 【 肉部 】 3. 女 + 月. 月(육)이 성부. (0, 2) 4. 女 + 月(肉). 女는 子의 도치형. 肉이 음을 나타냄. (0, 2) 19 5. 아이를 거꾸로 세운 모양. 기르고 있는 人, 또는 女子. (0, 0) 【 甲骨文 】 여인(母)이 아이(子)를 낳고 있는 모양. 여인아래 아이가 거꾸로 나 오는 모양. 『 典·引·流 』 (회의) 【 說文 】 「育, 養子使作善也. 从女, 肉聲. 아이를 선한 사람으로 기른다. 女 를 따랐고 肉을 음으로 한다. <분석> 毓은 育의 或體이다. 이들 두 자는 형은 다르나 의미는 같다. 본의는 '아이를 낳다'이나 점차 '아이를 기르다'로 인식되었고 '교육하다'로 인식되어 体 育, 德育, 智育등의 언어로 파생시켰다.					
					臣
前4.27.3	毛公鼎	齊鹽棠 楚曾	說文臣部	史晨奏銘	간체자
1. 임금 앞에 굴복하고 있는 사람의 모양을 본뜬 글자. (0, 2) 2. 아래를 향하고 있는 사람의 눈을 본뜬 것. (2, 0) 【 臣部 】 3. 임금의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있는 신하의 모양. (0, 2) 20 4. 임금 앞에 굴복하고 있는 모양으로 신하라는 뜻을 나타냄. (0, 2)					

<p>5. 내려다 본 사람의 눈의 모양. (0, 0)</p> <p>【甲骨文】 사람의 눈을 세워 놓은 모양. 『典·引·流』 (상형)</p> <p>【說文】 「臣, 牽也。事君也, 象屈服之形。 이끌림을 받은 자로 임금을 섬기는 사람이다. 굴복하고 있는 모양이다.」 (상형)</p> <p>〈분석〉 갑골문 자형은 세워놓은 눈의 모양인데 고개를 숙이면 눈이 세워지므로 이로서 '신하'를 나타냈다. 고대에 臣은 포로는 포승되어 끌려오므로 『설문』은 '牽'이라 한 것이다.</p>					
					
鐵 243 前 3.27.7	毛公鼎	春戰晉侯馬 秦睡虎地	說文自部	史巖後碑	간체자
<p>1. 사람의 코 모양을 본뜬 글자. (2, 2)</p> <p>2. 코를 본뜬 것. (2, 2) 【自部】</p> <p>3. 사람의 코의 모양을 본뜬 자. (2, 2) 21</p> <p>4. 코를 본뜬 글자. (2, 2)</p> <p>5. 사람의 코의 모양을 본뜬 것. (2, 2)</p> <p>【甲骨文】 코의 모양이다. 『典·引·流』 (상형)</p> <p>【說文】 「自, 鼻也。象鼻形。 코이다. 코의 모양이다.」 (상형)</p> <p>〈분석〉 自는 코의 모양인데 중국인들은 자신을 가리킬 때 코를 가리켜 自를 '스스로', '자신'으로 인식하였다. 코는 'bi' 라 하였는데 음을 나타내는 畀(bi)자를 합쳐 '코鼻'를 다시 만들었다.</p>					
					
明 2354	金文	戰國文字	說文自部	藝道人	간체자
<p>1. 自(여기서는 '코'란 의미)와 犬을 합친 글자. (2, 2)</p> <p>2. 自(코)와 犬(개)이 합친 글자. (2, 2) 【自部】</p> <p>3. 自(鼻) + 犬. 개는 코로 냄새를 잘 맡는다는 뜻. (2, 2) 22</p> <p>4. 犬 + 自. 自는 코. 개는 냄새를 잘 맡아, 犬을 합침. (2, 2)</p> <p>5. 코를 뜻하는 自와 개를 뜻하는 犬으로 이루어짐. (2, 2)</p> <p>【甲骨文】 개(犬)와 코를 나타내는 自를 합친 자다. 『典·引·流』 (회의)</p>					

<p>【說文】「臭，禽走，臭而知其迹者，犬也。从犬，从自。금수가 도망가면 그 냄새를 맡고 어디로 달아나는지를 아는 것이 개다. 犬과 自를 합쳤다.」(회의)</p> <p>〈분석〉 사냥할 때 잡으려던 금수가 도망가면 후각이 특히 발달한 개가 이를 쫓아 잡아낸다. 따라서 개와 코를 부각해 臭로 만들었다.</p>						
						至
鐵 125.4	孟鼎	邾公鐘	戰國楚曾	說文至部	定縣竹簡	간체자
<p>1. 새가 땅에 내려앉는 모양을 본뜬 글자. (0, 2)</p> <p>2. 矢(화살)가 목표선에 도달한 모양을 본뜬 것. (2, 0) 【至部】</p> <p>3. ○ + 一. ○는 矢를 거꾸로 놓은 모양. (2, 0) 23</p> <p>4. 새가 날아 내려 땅에 닿음을 나타낸다. (0, 2)</p> <p>5. 화살이 이르는 모양. (2, 0)</p> <p>【甲骨文】 화살(矢)이 땅(一)에 꽂힌 모양. 『典·引·流』(회의)</p> <p>【說文】「至，鳥飛从高下至地也。从一，一猶地也，象形。새가 높이 날아서 아래 땅으로 내려온 것이다. 一을 따랐는데 一은 땅이다. 상형이다.」(합체 상형)</p> <p>〈분석〉 갑골문 至는 화살이 거꾸로 땅에 꽂힌 모양이 완전하며 전국문자까지 이른다. 그러나 전국문자 楚曾의 자형은 마치 새가 땅으로 날아드는 모양과 흡사하다. 『설문』에 새가 땅으로 날아 내려 온 모양이라고 오인하였다.</p>						
						興
甲 2356 寧屬 1.603	鬲叔簋	戰國文字	說文白部	魯峻碑陰	간체자	
<p>1. 마주들여(昇)와 同을 합친 글자. (0, 2)</p> <p>2. 두 사람이 좌우의 손을 합친데 同을 붙인 글자. (0, 2) 【白部】</p> <p>3. 昇 + 同. 昇은 네손, 同은 술을 담는 그릇. (0, 2) 24</p> <p>4. 同 + 昇. 同은 힘을 합하다. 昇은 들어 올린다. (0, 2)</p> <p>5. 마주 들여(昇)와 음인 동시에 협력하다는 同으로 이루어짐. (0, 2)</p> <p>【甲骨文】 두 사람이 각기 두 손으로 물건을 들어 올리는 모양이다. 두 개의 손인 𠂇과 𠂇, 때로는 口도 합쳐졌다. 『典·引·流』(회의)</p>						

<p>【說文】「興,起也。从鼻从同,同力也。일어난다. 鼻와 同을 따랐다. 同은 日聲으로 협력함을 이룬다。」(회의)</p> <p>〈분석〉 네 개의 손으로 기물의 네 모서리를 잡고 들어 올리는 모양인데, 이 모양으로 ‘들어올림’을 나타냈다. 힘들어 내는 탄성 소리를 ‘口’로 묘사하기도 하였다. 점차 夨 과 口가 가까워져 『설문』에서는 從同으로 잘못 풀이 했다.</p>						
						旧
前4.154	駒尊	楚包2	說文白部	居延簡甲2028	禮器碑	간체자
<p>1. 갈대환(萑)과 절구구(臼)를 합친 글자. (2, 2)</p> <p>2. 萑(부엉이)의 모양. 여기에 우는 소리 臼를 합친 자. (2, 2) 【白部】</p> <p>3. 萑 + 臼. 鼻와 같이 臼가 성부. (2, 2) 25</p> <p>4. 없음. (0, 0)</p> <p>5. 萑는 부엉이와 같은 새. 우는 소리인 臼를 합친 자. (2, 2)</p> <p>【甲骨文】 새인 萑와 臼를 음으로 한 자. 『典·引·流』(형성)</p> <p>【說文】「舊, 雌舊, 舊留也。从萑,白聲。고양이를 닮았으며 밤에 나는 새이다. 오래 머무는 새이다. 萑를 따르고 臼를 음으로 한다。」(형성)</p> <p>〈분석〉 고양이 머리 때로 불리는 이 새는 다른 새의 등지를 깨뜨리는 습성이 있어 臼(등지)를 추가했다. 새 등지를 만들면 원래 등지는 옛 것이 되므로 新舊의 舊로 인식되었다.</p>						
						舌
後上24.10 珠790	舌簋	戰國燕陶簠	說文舌部	樊安碑		간체자
<p>1. 방패간(干 : 干)과 口를 합친 글자. (0, 2)</p> <p>2. 干(막대기)과 口가 합친 글자. (0, 2) 【舌部】</p> <p>3. 입 안에서 내민 혀의 모양. (2, 0) 26</p> <p>4. 干 + 口. 干은 범(犯)함. 입 안에 있으므로 口와 干을 합함. (0, 2)</p> <p>5. 입에서 내민 혀. 점차 干과 口를 합한 자로 됨. (2, 2)</p>						

<p>【甲骨文】 입 안에서 혀가 나와 있는 모양. 『引·流』, 나무 중에 방울이 진 동하는 모양. 『典』 (상형)</p> <p>【說文】 「舌, 在口所以言也, 別味也。从干, 从口, 干亦聲。 입안에서 이로서 말을 하고, 이로서 맛을 구별한다. 干과 口를 합쳤고 干은 음의 역할도 한다.」 (형성)</p> <p>〈분석〉 갑골문자 형을 볼 때 입에서 혀가 나와 있는 모양이고 양 옆의 점은 침을 나타낸 것이다.</p>						
						
甲 2858	甲 2858	金文	春秋僕兒鐘	睡虎地	說文舛部	華山廟碑
<p>1. 無와 舛을 합친 글자. (0, 2)</p> <p>2. 날개를 갖고 춤추는 사람에게 舛(두 발)을 붙인 글자. (0, 2) 【舛部】</p> <p>3. 無의 생략체 + 舛. 無의 생략체가 성부. (0, 2) 27</p> <p>4. 없음. (0, 0)</p> <p>5. 사람이 긴 옷을 입고 춤추는 모습인 無에 舛을 붙임. (0, 2)</p> <p>【甲骨文】 사람이 두 손에 소의 꼬리 같은 기물을 들고 춤추는 모양. 『典·引·流』 (상형)</p> <p>【說文】 「舞, 樂也。用足相背, 从舛, 無聲。 음악의 일종의 형식이다. 두 발로 춤추는 스텝을 밟는다. 舛를 따랐고 無를 음으로 한다.」 (형성)</p> <p>〈분석〉 舞는 無의 후기자다. 無는 춤추는 모양인데 ‘없다’는 말로 가차되어 가차의가 널리 쓰이자 금문에서 無 아래에 舛를 붙였다. 춘추 전국문자에서 위가 변하기 시작하여 예서에서 舞의 형태로 정형화 되었다.</p>						
						
乙 930	舟簋	戰國晉貨系	戰國楚包	說文舟部	魏上尊號奏	간체자
<p>1. 통나무배의 모양을 본뜬 글자. (2, 2)</p> <p>2. 작은 배를 본뜬 글자. (2, 2) 【舟部】</p> <p>3. 통나무의 속을 파내어 만든 배의 모양. (2, 2) 28</p> <p>4. 배의 모양을 본뜬 글자. (2, 2)</p>						

5. 통나무배의 모양을 본뜬. (2, 2)

【**甲骨文**】 배 모양이다. 『**典·引**』 (상형)

【**說文**】 「舟, 船也。古者共鼓。貨狄, 剡木爲舟, 剡木爲楫, 以濟不通。象形。배이다. 옛날 황제 요순시대 공고와 화적 두 사람이 나무속을 파내고 '주'를 만들고 나무를 깎아 노를 만들어 통과할 수 없었던 물을 건너게 되었다. 상형이다。」 (상형)

〈**분석**〉 자형은 거의 일맥상통하게 발전했고 갑골문에서 본의인 배 이외에 인명, 지명으로 쓰였다.

				
乙 6496	魯伯盤	戰國文字	說文舟部	禮器碑

1. 舟와 攴(支의 변형)을 합친 글자. (1, 2)

2. 판자를 본 판 모양과 攴(동작의 표시)이 합친 글자. (0, 0) 【**舟部**】

3. 舟 + 攴. 攴는 장대. 장대로 배를 밀어 나르다는 뜻. (1, 2) 29

4. 舟 + 攴. 攴는 상앗대. 舟와 합하여 배의 왕래를 나타냄. (1, 2)

5. 舟와 음을 나타내는 攴를 합하여 배가 왕래함을 뜻함. (1, 2)

【**甲骨文**】 凡과 攴를 합친 자다. 凡是 굽이 높은 쟁반이고 攴는 손으로 기물을 잡은 모양이다. 『**典·引**』, 凡과 舟를 합한자. 『**引**』 (회의)

【**說文**】 「般, 辟也。象舟之旋。从舟从攴。攴所以旋也。쟁반이 돌아가는 것이다. 이는 배가 도는 것과 같다. 舟와 攴를 따랐다. 般는 고문 般자이다。」 (회의)

〈**분석**〉 갑골문 舟는 舟자로 盤의 초문이다. 고문자에서 凡과 舟는 혼용되었는데 상대 이미 성행하였다. 고로 『**설문**』에서는 舟를 따랐고, '象舟之旋'으로 풀이했다. 본의는 물레를 돌려 질그릇을 빚는다는 뜻이었으나 여기서 '돌린다'는 의미로 인신되었고 '배회하다', '유람하다', '움기다'등으로 인신되었다. 점차 '盤'을 만들어 쟁반을 전용했고, '搬'을 만들어 '움기다'를 전용하였다. 갑골문에서는 조상 이름인 般庚(盤庚)을 비롯한 인명으로 쓰였다.

						良
乙 2510	季良父盃	戰國齊陶甗 戰國燕甗	說文良部	尹宙碑	간체자	
<p>1. 체나 키로 쳐서 곡식을 가려내는 모양을 본뜬 글자. (0, 0)</p> <p>2. 버나 보리의 낱알을 깨끗하게 씻은 모양. (0, 0) 【良部】</p> <p>3. 위아래가 터진 자루의 모양. 새김은 가차. (0, 0) 30</p> <p>4. 없음. (0, 0)</p> <p>5. 말 속에 곡식을 넣어 다시 꺼내는 모양의 상형자. (0, 0)</p> <p>【甲骨文】 고대 혈거 위이래 출입하는 입구와 층계가 접한 통로를 그린 모양. 『典·流』 (상형)</p> <p>【說文】 「良, 善也。從偏省, 亡聲。선량함이다. 偏의 일부가 생략되었고, 亡을 음으로 하였다.」 (형성)</p> <p>〈분석〉 ‘길’, ‘복도’등 본의에서 어두운 혈거보다 밝고 환한 곳이 좋으므로 ‘양호’, ‘현명’등으로 인신되었고 다시 ‘선량’, ‘선량한 사람’등으로 인신되었다. 良이 인신의에 전용되자 복도는 義部를 붙인 ‘郎’을 만들었다. 그러나 郎 역시 청년을 지칭하는 ‘新郎’등의 인신의에 전용되자 ‘广’를 붙여 ‘廊’을 만들어 ‘길’, ‘복도’에 전용하였다.</p>						
						艰
合584	合24204	毛公鼎	戰國	說文 籀文 良部	隸書	간체자
<p>1. 없음. (0, 0)</p> <p>2. 없음. (0, 0) 【良部】</p> <p>3. 𠂔과 𠂔을 합한자. (0, 2)</p> <p>4. 없음. (0, 0) 31</p> <p>5. 음을 나타내는 良과 기근을 뜻하는 𠂔을 합한 자. (0, 2)</p> <p>【甲骨文】 𠂔과 𠂔 혹은 𠂔을 합한 자다. 때로는 𠂔형으로 쓰기도 하였다. 『典, 引, 流』 (회의)</p> <p>【說文】 「艰, 土難治也。从𠂔, 良聲, 籀文艰从喜.」 (형성)</p>						

<p>〈분석〉 𡗗은 양손을 묶은 사람을 불에 태워 제사지내는 모양이다. 원래 火를 합쳤는데 火가 土로 잘못 변하여 堇이 되었다. 갑골문에서 '媼'는 재앙으로 쓰였는데 이는 여성이 북을 치는 모양이다. 女는 人, 冂 등을 쓰기도 하였다. 전쟁 시 여성 무당들이 선봉에 서서 북을 치며 전기를 북돋아 주었는데 전쟁과 관련되어 재앙으로 쓴 것이다. 『설문』 籀文은 금문과 유사하나 소전에 와서 𡗗과 𡗗의 합체로 간화되어 예서의 근거가 되었다.</p>					
𡗗		𡗗	𡗗	𡗗	色
後下 22.10	金文	楚信 戰國秦日乙	說文色部	石經殘碑	간체자
<p>1. 사람인(人)과 병부절(巴 : 冂의 변형)을 합친 글자. (0, 2)</p> <p>2. 두 사람이 바짝 다가선 모양을 본뜬 글자. (0, 0) 【色部】</p> <p>3. 人의 변형 + 巴(節)의 본자인 冂을 합한 자. (0, 2) 32</p> <p>4. 人 + 冂(節). 人과 冂(節)를 합하여 안색이라는 뜻. (0, 2)</p> <p>5. 人과 冂 두자를 합쳐 사람위에 사람을 쓴 모양. (0, 2)</p> <p>【甲骨文】 사람이 꿰어앉은 모양인 𠂇와 刀를 합한 자. 『典』(회의)</p> <p>【說文】「色, 顏氣也。从人, 从冂。얼굴에 나타난 기색이다. 人과 冂을 합하였다.」(회의)</p> <p>〈분석〉 칼로 위협하여 '안색의 변함'이나 '단절'을 나타냈다. 때로는 刀의 변체인 冂을 쓰기도 하여 𡗗과 色을 같은 자로 보기도 한다. '단절'에서 '노함'으로 다시 '기색'으로 인신되었고, 특히 '여인의 용모', '인색', '색채', '종류'등으로 인신되었다. 『설문』은 刀를 人으로 오인하였다. '갑골문'에서는 신위명으로 쓰였다</p>					

三. 綜合分析

이상에서 한국 5종 漢字字典의 𡗗부수에서 色부수까지 18개 부수 중 갑골문과 『說文』에 있는 32자의 자형 풀이를 비교하였고 매 글자의 풀이 비교를 종합적으

로 분석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1. 5종 사전 중 32자의 배점 기준에 따른 득점

각 글자풀이가 갑골문이나 『說文』 과 일치한 자는 2점, 유사성이 있는 자는 1점, 관계가 없는 자는 0점으로 배점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자형 번호	글		갑 골 문			설 문		
	글 자수	총점	점수	백분	등수	점수	백 분	등수
1	32자	64점	29	45%	3	52	81%	1
2	32자	64점	30	47%	2	42	66%	3
3	32자	64점	41	64%	1	52	81%	1
4	32자	64점	17	27%	5	44	69%	5
5	32자	64점	23	36%	4	35	55%	4
평균	32자	64점	28	43%		45	70%	

2. 5종 사전 32자와 갑골문 자원풀이와의 상황별 비교.

1) 갑골문과 일치하여 5종 모두 2점인 字는 義, 狝, 而, 耳, 自, 臭, 舟 등 7자이고 5종 모두 틀린 자가 없는 자는 이들 7자뿐이다.

2) 갑골문과 완전히 달라 5종 모두 0점인 자는 罔, 羅, 美, 毒, 翳, 聖, 聞, 聽, 育, 興, 舞, 良, 艱, 色 등 14자이고 이를 비롯해 11자는 모두 틀린자를 포함한다.

3. 5종 사전 32자와 『설문』 자원 풀이와의 상황별 비교

1) 『설문』 과 일치하여 5종 모두 2점인 字는 羅, 美, 義, 狝, 翳, 而, 耳, 自, 臭, 興, 舟 등 11자이고, 缶, 罔, 聖, 聞, 聲, 聽, 肉, 育, 舊, 舌, 舞, 色 등 12자는 단 한 종의 사전을 제외하고 모두 2점이다.

- 2) 32자 중 『설문』 과 완전히 달라 5종 모두 0점인 자는 良 단 한 자이고 31자는 모두 틀린 자를 포함한다.

4. 5종 자전의 풀이와 갑골문 · 『說文』 각 풀이와의 비교 상황

- 1) 5종 자전과 갑골문의 일치성은 64점 중 평균 28점으로, 적중률 43%다.
- 2) 5종 자전과 『설문』 의 일치성은 64점 중 평균 45점, 적중률 70%다.

5. 갑골문과 『說文』 의 자형풀이 비교

- 1) 32자 중 두 자형의 풀이가 일치하는 자는 義, 羽, 而, 耳, 自, 臭, 舟 등 7자이고 聖, 肉, 舊, 般 등 4자는 자원이 없는 한 종류의 사전을 빼면 도합 11자는 기본적으로 일치 한다.
- 2) 32자 중 두 자형의 풀이가 다른 자는 도합 21자이다.
- 3) 갑골문과 『설문』 의 일치도는 43%이고, 나머지 57%는 서로 다르다.
- 4) 갑골문과 『설문』 의 57%에 달하는 상이성을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32자에 대한 六書 분류

자형 六書	전체글자	갑골문		설 문	
		글자 수	백분율	글자 수	백분율
상형	32자	15	47%	11	34%
지사	32자	0	0%	0	0%
회의	32자	16	50%	10	31%
형성	32자	1	3%	11	34%
		32	100%	32	100%

(2) 갑골문 · 『說文』 의 六書 변화 추이

32자를 六書로 분류해볼 때 갑골문은 상형 15자, 회의 16자, 형성이 1자이다. 상형이 많은 것은 부수의 대부분이 상형자이기 때문이다. 『설

문』은 상형 11자, 회의 10자, 형성이 11자로 형성, 회의자 순이다. 갑골문 상형이 『설문』에서 4자 줄어들고 형성은 1자에서 10자로 대폭 늘어났다.

- (3) 이번 연구대상자중 갑골문 상형자, 회의자가 『설문』에 와서 형성으로 편입된 것은 10자이고, 상형이 회의자가 된 경우는 2자이다. 도합 12자가 자형구조의 변화를 보여 전체의 37%를 차지하였다.

四. 제 1차~제 9차 연구의 종합

1. 제1차~제9차의 종합

제1~9차에 걸친 5종 자전 457자를 대상으로 갑골문·『설문』을 비교해 볼 때 5종 자전의 풀이가 갑골문과의 일치도는 45%이고, 『설문』과의 일치도는 56%로 나타났다.⁴⁾ 『설문』과의 일치도가 갑골문 보다 11% 높게 나타났는데 그 이유를 육서분류를 통해 볼 때 전체 457자 중에서 갑골문 상형은 171자, 『설문』 상형은 94자로 상형자가 반 정도이고, 갑골문 형성은 50자에서 『설문』의 형성은 거의 147자로 3배가 증가했다. 이로 인해 자형의 구조변화가 있었기 때문이다.

2. 제1차~제10차 연구의 종합

제1~10차에 걸친 5종 자전 중 489자의 갑골문·『설문』과의 비교 결과는 다

자형 번호			갑 골 문			설 문		
	글자수	총집	접수	백분율	등수	접수	백분율	등수
1	489	978	429	44%	4	621	63%	1
2	489	978	473	48%	3	496	51%	4

4) 梁東叔, 「韓國 韓國 五種 字典의 字源 分析과 甲骨文·『說文』 과의 比較연구 IX」 『中國語文學論集』 제 47호, 2007.

3	489	978	490	50%	2	613	63%	1
4	489	978	294	30%	5	479	49%	5
5	489	978	523	55%	1	591	60%	3
	489	978		45%			57%	

음 표와 같다.

489자가 갑골문과의 일치도는 45%이고 『설문』과의 일치도는 57%이다. 『설문』과의 일치도가 갑골문 보다 12%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 이유를 六書 분류로 분석해 본다.

자형		갑골문		설문	
		글자수	백분율	글자수	백분율
六書	전체글자				
상형	489	186	38%	105	22%
지사	489	15	3%	14	3%
회의	489	237	49%	212	43%
형성	489	51	10%	158	32%
		489	100	489	100

五. 結 論

이상에서 한국의 5종 漢字字典 중 한자 자원 풀이를 갑골문 · 『설문』의 자형 풀이와 비교하여 자원의 풀이가 어떠한지를 고찰하였고 종합적으로 분석을 하였다. 본 논문의 종합 결과는 一부수에서 糸부수까지 105개 부수중의 457字에 한정되었고 결론은 제1차~제9차를 종합한 것이다. 각 글자의 배점과 통계상에는 +, - 3점을 오차범위로 하며 아래와 같이 몇 가지로 결과를 도출하였다.

1. 5종 사전 중 갑골문의 자원 풀이와 가장 근접한 것은 5번인 『S漢字辭典』이다. 일치도가 55%로 가장 높고, 3번인 『H活用字典』이 49%로 다음을 이었다. 이들 두 사전은 갑골문 풀이와 가장 일치한 사전이다. 갑골문 자원풀이와 가장 일치하지 않는 것은 4번인 『D玉篇』이다.

2. 5종 사전 중 『설문』의 자원풀이와 가장 근접한 사전은 1번인 『P漢字辭典』이다. 일치도가 62%로 가장 높고, 3번인 『H活用字典』이 61%로 다음을 이었다. 이들 두 사전은 『설문』 풀이와 가장 많이 접근된 사전이다. 『설문』의 자원풀이와 가장 일치하지 않는 것은 4번인 『D玉篇』이다.

3. 5종 자전과 갑골문·『설문』 풀이를 비교했을 때 갑골문과의 일치도는 평균 45%이고, 설문과의 일치도는 평균 56%로 나타났다.

4. 『설문』 과의 일치도 비율이 갑골문보다 11% 높다. 본 9차 연구대상인 44자 중 갑골문과 『설문』 의 일치도 비율은 『설문』 이 11% 갑골문을 앞섰다. 이는 기본적인 갑골문 상형자가 문자의 발전 과정에서 '의부'나 '성부'가 첨가되어 회의, 형성자로 구조 변화된 자가 증가되었다. 『설문』 은 이들 글자를 근거로 풀이하였기 때문이다. 갑골문 중 六書의 비율은 회의, 상형, 형성, 지사 순이고, 『설문』 은 회의, 형성, 상형, 지사 순이다. 그것은 갑골문이 소전으로 오면서 상형자는 회의·형성으로, 회의자는 형성으로 구조가 크게 변화되었고 『설문』 은 변화된 소전을 근거로 풀이했기 때문이다. 상형자가 많을수록 甲骨文과의 일치도가 높고, 회의자나 형성으로 변한 자가 많을수록 『설문』 과의 일치도가 높았는데 이는 계속된 본 연구 중의 일관된 추세이다.

<參考文獻>

- 『새韓國辭典』, 東亞出版社 編輯部, 東亞出版社, 1999.
『最新 實用玉篇』, 理想社 編輯部, 理想社, 1999.
『最新 韓國 現代玉篇』, 編輯部, 三星書館, 1999.
『韓國大辭典』, 檀國大 東洋學研究所, 1999.
『新日活用玉篇』, 教學社 編輯部, 教學社, 2000
高樹藩, 『形音義綜合大字典』 正中書局 1974
陳初生, 『金文常用字典』, 陝西人民出版社, 2004
湯餘惠, 『戰國文字編』, 福建人民出版社, 2001
何琳儀, 『戰國古文字典』, 中華書局, 2004
段玉裁, 『說文解字注』, 上海古籍出版社, 1981
徐中舒, 『甲骨文字典』, 四川辭書出版社, 1990
趙誠, 『甲骨文簡明字典』, 中華書局, 1986
谷衍奎, 『漢字源流字典』, 華夏出版社, 2003
馬如森, 『殷墟甲骨文引論』, 東北師大出版社, 1993
于省吾, 『甲骨文字詁林』, 大通書局, 1981
于省吾, 『甲骨文字釋林』, 臺灣大通書局, 1981
李孝定, 『甲骨文字集釋』, 歷史語言研究所, 1965

- 許進雄,『古文諧聲字根』 商務印書館, 1995
謝光輝,『漢語字源字典』 北京大學出版社
張玉金,『甲骨文虛詞詞典』, 中華書局, 1994
裘錫圭,『古文字論集』, 中華書局, 1992
胡厚宣,『甲骨學商史論叢』, 臺灣大通書局, 1945
陳夢家,『殷虛卜辭綜述』, 科學出版社, 1956
陳煒謨,『甲骨文簡論』, 上海古籍出版社, 1987
王宇信,『甲骨學一百年』, 社會科學院文獻出版社, 1990
季旭昇,『說文新證』, 藝文印書館, 2003
梁東淑,『甲骨文解讀』, 書藝文人畫, 2005.
梁東淑『中國文字學』 차이나하우스 2006
梁東淑,『韓國 五種字典의 字源 分析과 甲骨文·『說文』의 비교연구 I-X』 『中國語文學論集』 제37호-제47호, 2007.

<中文提要>

本論文是將韓國漢字字典的字源解釋與甲骨文及『說文』的字源解釋比較的研究。首先選了合乎如下條件的五種韓國漢字字典。第一是有字源解釋, 第二書的大小相等, 第三出版年度相近。先選出了甲骨文中常用, 並在韓國單獨使用的六百多個字, 根據部首加以排列。然後為本論文選了從缶部首到色部首的三十二個字。此為本次研究的範圍。這五種字典中的三十二個字, 與甲骨文的字源比較。同時也加入比甲骨文晚一千多年的『說文』的解釋, 以便字形的比較。因『說文』以小篆為主, 『說文』的字形解釋對後代的字源解釋有莫大的影響。這六百多字的分析將分十餘篇論文加以研究。本論文為第十次的研究結果。本論文的結果是將與第一次六十二個字和第二次八十一個字, 及第三次七十一個字 第四次六十個字, 第五次四十二個字, 第六次三十五個字, 第八次三十五個字, 第九次四十四個字, 第十次三十二個字的研究合起來的。五種字典中的四百八十九五十七個字, 與甲骨文比較後得出如下幾點結果。韓國五種字典的四百八十九個字字源解釋與甲骨文一致的有45%, 與『說文』一致的有57%, 韓國五種字典與『說文』一致的比《甲骨文》一致的高12%。許多甲骨文象形字到了小篆變成會意·形聲字了。『說文』根據已變的小篆字形解釋。因此五種字典裏的象形字多與甲骨文一致的字多, 會意·形聲字多與『說文』一致的字就多了。通過本論文顯示了一部分韓國五種漢字字典的字源解釋的情況。

關鍵詞： 甲骨文, 金文, 戰國文字, 小篆, 說文, 辭典, 字典, 玉篇, 字源, 字彙, 漢字.